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Youth Group Volleyball Tournament

5 월 17 일 오전 8 시에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오전 7 시 15 분에 교회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직접오시는 가정은 8 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 299 Rockland Lake Rd. Valley Cottage, NY 10989 Lot #5

Sunday School/Nursery School 은 오후 12 시에 같은 장소에서 Picnic 이 있습니다. (Parents, please join us! We will have BBQ and picnic together at the park!)

2017 년 5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김은영 집사/시편 31:1-5, 15-16

이해 주 기도: 신미라 (신영순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예배순서

2017년 5월 7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32 장(통 48 장) “만유의 주재”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23 편	김동수 집사
찬양(Choir)	“깊고도 넓은 주의 사랑”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4:21-31	인도자
설교 (Sermon)	“약속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545 장(통 344 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4. 30. 주일 설교 요약

좋은 뜻에서 나온 열심 (갈 4:8-20)

이방인으로 우상과 정욕에 종노릇하던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것은 다시 우상과 방탕의 이방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방탕한 삶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삶이나 똑같이 하나님 아들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들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이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나의 의와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능력으로 삼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아들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갈라디아인들이 이 아들됨을 누리도록 수고한(11, 19) 바울의 열심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묶이게 하려는 악한 열심입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라면, 교회를 위한다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자기 자랑과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바울의 살리는 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격없는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자랑이 아닌 사람이 “나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 자랑입니다. 비슷한 사람을 모으는 구호요 못미치는 사람에게 대한 교만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기에 약해도 감당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 갈라디아에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도 바울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을 통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잘 될 때, 성과가 있을 때만 열심을 낸다면 열심으로 성공하면 교만거리요, 그렇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둡니다.

형제가 살도록 내는 열심이기에 때로는 마음을 거스를지라도 진리를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때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형제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인들이 예수의 형상을 이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소망을 가지고 수고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기에 참고 바랍니다.

형제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생명을 낳는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열심이면 됩니다. 내 능력이 자신에 있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면 됩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겸손하여 기도하는 열심이면 됩니다.